

지역 매아리

정읍시 보건소, 한혈운동 전개

정읍시 보건소가 혈액 수급 안정화와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한혈운동을 전개한다.

한혈운동은 시청 공무원들 비롯하여 유관기관과 단체 직원들 대상으로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시청 광장에서 진행된다.

보건소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기관단체 직원들 대상으로 한혈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정읍한혈의 공간(옛 시가지주민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시민의 한혈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혈자에게는 혈액형과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항체 검사, 간기능 검사 등 7종의 검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천700원(3천500명분의 예산을 확보해 한혈 1회당 문화상품권(5천원) 또는 재래시장 상품권(3천원)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혈은 이웃사랑의 가장 확실한 실천이자 나라사랑의 지름길이다"며 "한혈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매주 목요일 정읍한혈의 공간에서 실시되는 한혈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단풍미인쌀 재배단지 품질관리원 대상 간담회 가져

정읍시가 7일 제2청사에서 단풍미인쌀 재배단지 품질관리원 2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에서는 하반기 주요계획과 품질검사원의 역할, 활동 사항 등이 안내됐다.

시는 특히 소비자가 원하는 밥맛과 품질향상을 위해 병해충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표준 매뉴얼에 따라 포장관리와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수확 후 땅심을 높이고 토양성분을 개선하기 위해 벼짚을 잘게 잘라 깔고 가물갈이를 하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이어 품질관리원과 시 관계자는 단풍미인쌀 생산단지의 발전방안에 대해 스스럼없는 대화를 나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단풍미인쌀 연구용역의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도출했다.

시 관계자는 "폭염과 태풍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애쓰시는 생산 농가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올 한해 좋은 결실을 위해 품질관리원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해 품질관리원은 올해 3월 위촉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간 토양검정 시료채취와 생산 매뉴얼에 따른 생산 전 과정 농가 지도관리, 재배지 예찰, 표찰부착관리 등의 활동을 해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명품자연 부안 홍보 역할 '톡톡'

미스변산 선발대회 입상자 부안군 관광홍보대사 위촉

부안군은 7일 제30회 미스변산 선발대회 입상자 7명을 부안군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지난 7월 27일 변산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30회 미스변산 선발대회는 휴가철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확 달라진 변산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안의 관광 명소와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열리고 있는 행사로, 올해로 30회를 맞이하였으며, 미스변산 진 이지수 양 등 7명의 수상자가 미스변산으로 선발되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미스변산 진 이지수, 선 양수진, 미 지경선, 부

안참봉 이주연, 전북도민일보 최유신, 더마비드화장품 박아람, 제일건설 이수지 양 등 총 7명에게 부안군 관광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식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는 "미스변산으로 선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자연경관이 빼어난 관광 명품도시이자 2023년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캠프리 개최지인 부안의 홍보 사절단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장 수여후 문화관광해설사와 동행하며 짬버리&부안관광스탬프 투어를 하면서, 청치박물관

등 부안군 관광명소 알아가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앞으로 7명의 미스변산은 부안군 관광홍보대사로서 부안군 각종 행사에 함께하여 부안군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02년부터 지금까지 미스변산 입상자 90명을 부안군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미스변산 출신의 맑음, 문하임 등 트로트 가수를 비롯해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부안군 관광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과 육군 35사단이 지난 6일 고창군 무장면 김영길 월남참전유공자의 집에서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을 가졌다.

고창군, 월남전 참전 용사에 새 보금자리 지원

사회단체·기업 등 가전제품 지원·건축 재능기부로 힘 더해

고창군과 육군 35사단이 지난 6일 고창군 무장면 김영길 월남참전유공자의 집에서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고창군의회장, 석종건 35사단장, 황선우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등을 비롯한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는 육군본부와 민간기관의 협업을 통해

의 예우증진을 위해 노후주택을 철거, 신축해드리는 사업이다. 이날 새 보금자리를 얻게 된 김영길 참전유공자는 불의의 화마로 인한 해 기증 주택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날 보금자리는 고창지역 사회단체와 기업들이 나눔과 봉사로 울려퍼 의미를 더했다. (유)금호산업 임정례님이 175만원 상당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사회

복지협의회(회장 김정강)에서는 세탁기를 지원했다.

또 고창청토서관학교(대표 김경표)와 한솔건축사무소(대표 김상수)에 선 건축 시 재능기부를 통해 인력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불의의 화마로 실의에 빠진 참전유공자가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지역의 참전용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여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폭염 속에서도 소통으로 현장행정

고창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필까 살피는 가운데 7일 주요사업장 방문 시에도 이동 동선에 맞춰 첫 번째 방문지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낮 시간에는 답소도 나누시고 편히 쉬시다 기온이 떨어지면 귀가하시는 방법으로 더위를 피해가시길 당부했다.

이어서 해안가 주변의 주요사업장을 살펴보고 고창갯벌센터와 고창갯벌식물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갯벌생태계 복원 현장과 체험프로그램들을 점검했고, 특히,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삼양사 염전부지를 방문하여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 어가와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으로 천혜의 생태자원인 갯벌과 연결되는 삼양사 염전 부지는 일부 폐염전의 경우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복원력을 갖고 생태자원화 되어 다양한

해양동식물의 서식처로 활용되었고, 염전은 우리 근대문화역사의 소중한 역사자원으로 보존 가치가 높아 향후 고창군의 대표 역사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앞으로 의회를 비롯하여 주민과 협력하여 보존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300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호 어촌마을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시 마을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지역협의체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실시계획 완료 전에 충분히 소통하여 마을 주민이 사업추진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계속되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기상 군수는 민선 7기는 군민이 군수인 시대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군수 혼자만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군민과 지역 및 관련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업으로 결정해 나가는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민영 정읍부시장, 환경 관련 주요시설 방문

임민영 정읍시 부시장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환경 관련 주요시설을 현장 방문했다.

임 부시장은 5일 공공하수처리장과 가축분뇨처리장, 매립장을 방문했다.

먼저 임 부시장은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과 담당자로부터 시설현황과 주요 추진사항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이어 시설과 운영사항을 확인하고 현장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공공하수처리장을 찾은 임 부시장은 인근 주거지역의 악취 문제 등 민원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가축분뇨처리장과 매립장을 찾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설치·운영 계획과 순환형 매립장 등 대

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6일에는 가축사육시설과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밀집한 덕천면 일원을 찾아 현장을 살폈다.

임 부시장은 악취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 부시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시설물은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대상 '무비 데이' 운영

부안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5개소 1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2주간 부안마실영화관에서 '드림스타트&지역아동센터 무비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지역아동센터 무비데이는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마련한 문화 여가 활동으로 미디어 문화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고와 창의력 증진을 도모하

고자 부안군 드림스타트 기획하였으며, 평소 지역아동센터 복지에 관심과 지원이 많은 부안마실영화관의 후원으로 나뭇잎씨, 앵그리버드 등 영화관람의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해법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은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와 부안마실영화관이 무비데이를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central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several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찻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담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s listed include: 1. 750ml 2ea, 잔 2ea/16%, 2.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3. 750ml 1ea/12%, 4. 500ml 2ea, 잔 2ea/12%, 5. 375ml 5ea/13%, 6. 500ml 1병 2ea/12%, 복분자 1ea/13%, 잔 1ea, 오프너, 7. 375ml 2ea/13%. Contact: TEL: 063-584-9900, www.gangsanwine.com